

보도시점 2024. 11. 20.(수) 12:00 배포 2024. 11. 20.(수) 09:00

2024년 3/4분기 대외채무는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,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

- 단기·장기외채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대외채무 규모는 444억불 증가 -
-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으나,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-

2024년 3/4분기 대외채무는 7,027억불로 전분기말(6,583억불) 대비 +444억불 증가(+6.7%)하였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587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168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5,440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276억불 증가하였다. 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(+222억불), 중앙은행(+30억불), 은행(+58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134억불) 외채가 모두 증가하였다.

한편, 대외채권은 1조 807억불을 기록하며, 전분기말(1조 397억불) 대비 증가(+410억불, +3.9%)하였다.

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,780억불로 전분기말(3,815억불) 대비 감소(△34억불, △0.9%)하였다.

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4.2/4분기 21.6% → 3/4분기 22.6%)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'24.2/4분기 34.4% → 3/4분기 37.8%) 등 건전성 지표의 경우,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으나, 예년에 비해*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참고로,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)은 2024년 3/4분기말 기준 156.2%로 규제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* 직전 3개년 분기평균 : (단기외채/총외채 비중) 26.1% (단기외채/보유액 비율) 38.4%

다만,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함께, 미국 대선 여파, 중동정세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	유창연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곤 (gonnnn@korea.kr)

참 고

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

구분	2021	2022	2023				2024			전기비 증감
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
총 외채(억불)	6,307	6,733	6,730	6,742	6,598	6,725	6,675	6,583	7,027	+444
단기외채(억불)	1,651	1,740	1,788	1,661	1,461	1,407	1,410	1,420	1,587	+168
장기외채(억불)	4,656	4,993	4,942	5,081	5,137	5,319	5,265	5,163	5,440	+276
단기외채/총외채(%)	26.2	25.8	26.6	24.6	22.1	20.9	21.1	21.6	22.6	+1.0
단기외채/보유액(%)	35.7	41.1	42.0	39.4	35.3	33.5	33.6	34.4	37.8	+3.4
대외채권(억불)	10,825	10,351	10,391	10,351	10,174	10,445	10,521	10,397	10,807	+410
순대외채권(억불)	4,519	3,618	3,661	3,608	3,576	3,720	3,846	3,815	3,780	△34

※ 통계 출처: 2024년 3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4.11.20.)